

코로나에 아이 맡길 곳 없어...경단녀 늘었다

돌봄시설 잦은 휴원에 육아 부담 가중... 지난해 광주·전남 2030 여성 취업자 1만7000명 감소

“어린 아이가 코로나19 감염이라도 될까 불안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어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여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던 A씨(여·36)는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휴원하기도 했고, 자칫 아이가 감염될까 염려스러웠다고 한다.

양가 부모님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도 없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회사 분위기 탓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여건도 되질 않았다. 결국 그녀는 경제적인 부담을 끌어안은 채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자녀를 둔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으로 어린이집 등 돌봄 시설의 잦은 휴원 등으로 보육과 가사부담이 늘면서 여성들이 일터를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시기에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식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 이후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20~30대 여성 취업자는 1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7000명(-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20~30대 남성 취업자가 26만8000명에서 26만3000명으로, 5000명(-1.9%) 감소한 것과 달리 2030 여성 취업자 감소폭은 남성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2030 여성 취업자 수가 '20만명선'이

무너지는 관련 통계를 낸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여기에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광주가 4만5000명, 전남 3만8000명 등 무려 8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15~54세 기준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광주가 18.2%, 전남은 15.1%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17.4%라는 점에서 광주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지난해 20~30대 여성 취업자가 감소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육아 문제가 꼽힌다.

이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20~59세 여성 3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높아졌다며 “일자리 규모나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일하는 부모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21.3%였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10명 중 7명은 퇴직 이유로 '코로나 시기 자녀 돌봄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자녀를 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한 채 경력이 단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자녀를 돌봐줄 시설의 '공백'이 지난해 지속됨에 따라 일과 육아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5명 중 4명 이상이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여성의 퇴직 비율은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높아졌다”며 “일자리 규모나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일하는 부모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관광업 사업자 보증부 대출

전남신보, 1년간 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 급감을 겪은 전남 관광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무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16일 순천시 해룡면 전남신보 본점에서 '전남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전남신보에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전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150억원 규모 보증부대출을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관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거나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고 7000만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보증요율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로 우대 적용하며 최초 1년 동안 무보증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 현대자동차는 16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브카시(市) 델타마스 공단 내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코 위도도(맨 왼쪽)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기차 아이오닉 5 차량에 서명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인구 6억 이상의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네시아 공장을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공장은 77만7000㎡ 부지에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15만대, 향후 25만대 규모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현대차 제공>

한전, 송전선로 없이 송전용량 늘린다

그래핀 섬유 기반 초경량·대용량 전력선 개발 나서

한국전력이 송전선로 건설 없이 송전용량을 늘릴 수 있는 초경량·대용량 전력선 개발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5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협약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과 카이스트, ㈜삼환티에프, ㈜소노인더스트리가 협약에 참여했다.

이들 기관·기업은 협약에 따라 그래핀 섬유 기반의 초경량·대용량 전력선 개발에 나선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 없이 전력선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송전용량을 늘릴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대응하려면 기존보다 송전용량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은 부지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전이 현재 사용하는 알루미늄 강심(ACSR) 선재 역시 기술적으로 송전용량 증대가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이유로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되 전력선만 교체해 송전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소재 전력

선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한전은 오는 2024년 8월까지 그래핀 섬유 기반의 전력선 선재 개발과 대규모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핀 섬유 기반 초경량·대용량 전력선은 기존의 알루미늄 소재 전력선보다 송전 손실이 덜해 3배 이상의 송전용량 증대가 가능하다.

또한 무게가 가벼워 전선 처짐 현상이 개선돼 고장이나 안전사고 발생도 줄어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그래핀 섬유 기반 전력선 개발에 성공해 기존 철타를 활용한 대용량 전력 전송이 가능해지면 전력산업 전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블록체인 기술센터’ 구축 지자체 모집

인터넷진흥원, 내달 4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다음달 4일까지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진흥원은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블록체인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술 사업화 및 블록체인 기술·개발·검증, 혁신 성장 등 지역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금 17억원과 지방비를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환경 구축 및 서비스 실증 ▲블록체인 융합기술(NFT 등) 개발지원 ▲블록

체인 기업 육성 지원체계 마련(인큐베이팅·기술사업화 지원·투자자 설명회)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에 소재하고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1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원태 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는 청년농부사관학교 제7·8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7기는 이달 23일까지, 8기는 오는 5월 1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기수별로 50명이다.

교육과정은 온라인 교육 및 합숙과정(농가현장 인턴 2개월 포함) 등 6개월로 구성됐다. 이론을 기반으로 강화된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수료자에게는 정부 귀농 교육 시간 이수 및 청년 후계농 선정 가점을 부여한다. 국가기술자격증 및 농업용 기계(드론·굴삭기·지게차 등)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또한 영농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판로도 지원한다. 문의 031-659-3661~366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과 신용평가사 KCB(주), (주)핀다가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맺고 있다. 왼쪽부터 황중섭 대표이사, 송중욱 은행장, 이혜민·박홍민 대표. <광주은행 제공>

금융 소외고객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광주은행이 핀테크(금융 기술) 기업, 신용평가사와 손잡고 금융 소외 고객을 위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펼친다.

신용평가사 관리 목적의 혁신 금융상품 공동 추진은 금융권 최초 사례이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16일 황중섭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대표이사, 이혜민·박홍민 (주)핀다 공동 대표와 '혁신금융서비스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신 파일러' (금융 소외 고객)의 대출 기회 확대와 금융 혜택 강화를 위한 혁신 금융상품을 함께 만들 방침이다.

신 파일러(Thin Filer)는 대출 실적이나 신용 카드 사용내역 등 금융거래 이력 부족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금융 소비자를 일컫는다.

주로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시중은행의 현행 신용등급평가 방식으로는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저금리 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각 사는 앞으로 신 파일러 고객의 신용관리를 돕고, 맞춤형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신 파일러 고객 전용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을 개발하고, 각 사의 고객 접점 및 플랫폼을 공유·활용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 행장은 “평소 ‘상생과 동행’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과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를 통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기에 금융거래 이력 부족으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신 파일러 고객을 포용하기 위한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찾아가는 건설현장 실무 교육 실시

익산국토관리청, 22일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사고 예방과 현장 종사자 의식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품질 관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 맞춤형 품질 교육으로 익산청 27개 도로현장과 국토관리사무소(광주, 남원, 순천, 전주)의 품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에 걸쳐 진행된다.

품질관리 주요 지적사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설명을 포함해 최근 레미콘과 아스콘 등 주요자재 품질향상, 품질시험서 위조방지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CQI) 부문, 건설공사 품질 관련 법규 및 현장 품질관리 실무 등 품질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품질관리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련 법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절성점검, 건설자재 생산공장점검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현장의 법적 기준과 작성 방법,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비롯해 현장 품질점검, 레미콘·아스콘 생산공

장점검과 관련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사진자료와 설명을 통해 철저한 품질·시공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품질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품질시험 전 과정을 건설품질 시험검사 종합 관리 시스템(CQI)에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품질검사 성적서 위조를 방지, 시험자제 결함 시 원인규명 등을 위해 품질시험 자료를 지속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삼 익산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은 “찾아가는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고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59.23 (+37.70)
▲ 코스닥	891.80 (+20.58)
▲ 금리(국고채 3년)	2.268 (-0.017)
▲ 환율(USD)	1235.70 (-7.10)